

미, 러시아에 에너지 패권 전쟁 선포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8일 미국의 막강한 '셰일 파워'를 무기로 세계 원유·가스 시장에서 러시아의 패권을 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의회전문 더힐TV에 출연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몇 년 뒤 하루 1500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생산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8월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추월해 세계 1위에 올랐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셰일오일 생산이 시간이 갈수록 늘면서 미국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강자'는 러시아다. 미국은 원유든, 가스든 생산량에선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대부분 국내 소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반면 러

시아는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한다. 특히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전 세계 천연가스 수출의 약 3분의 2 차지)은 세계 1위로 시장 점유율이 29%에 달한다.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 점유율은 절대적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가스 수입의 51%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두 번째 초대형 가스관인 '노르스트림2'가 올해 착공됐다. 내년 이 가스관이 완공되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송되는 천연가스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유럽에 가스 수출을 늘릴 수 있다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의 입김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이 '셰일 파워'를 이용해 국제 에너지 시장은 물론 미국과 불편한 러시아나 이란 등을 견제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2014년만 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서 러시아와 이란은 패자를 불렀지만 이후 미국산 셰일오일과 셰일가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유가는 20달러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쳤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자 미국이 다시 '증산'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금리인상 멈춰라" 연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인상이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내세우는 미 경제 호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에 노골적으로 금리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뉴욕증시가 급락하자 '제정신이 아닌' (crazy), '미친' (loco), '웃기는' (ridiculous) 등의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연준을 거세게 압박했다.

과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닛 옐런 전 의장의 후임으로 선택한 인물이다. 하지만 과월 의장은 올해 초 취임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옐런 시절의 긴축통화정책 방향을 고수,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연준의 금리인상을 비판하는 이유는 한달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자칫 자신의 최대치적인 경제 호조에 제동을 걸고, 경제지표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연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달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번째 금리인상이었다. 2005년말 첫 금리인상 이후로는 8번째다.

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과 내년 3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9월 소비자물가 0.1% 상승 그쳐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

11일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치는 0.2% 상승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CPI는 2.3% 올라 8월의 2.7%보다 오히려 줄었다.

9월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둔화한 점은 에너지와 자동차 가격 등의 영향을 받았다. 9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이 0.2% 떨어졌다. 음

식 가격은 전월대비 변화가 없었다. 주거 비용은 0.2% 올랐고, 의료비는 0.2% 상승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비 0.1% 하락했고, 중고차 가격은 3.0%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연준의 정책 목표치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지표만으로 연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국제금리의 가파른 오름세에는 다소간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Flipping!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단기투자
이익창출!

전문팀이 구성되어
안전하게 사고 파는
단기투자로
이익을 만들어 드립니다.

안내 말씀

예정됐던 2차 세미나는
한정된 좌석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취소되고
개별상담으로 진행합니다.

★Flipping
★First Home Buyer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년 비즈니스 경험과
연방공인세무사인 제가
최고 용자 브로커와
한팀이 되어 당신의
소중한 투자, 최대 효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714.562.0404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팀·스피릿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INVESTMENT & DEVELOPMENT

미국생활 능력있고 믿음직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어야 든든합니다.

당신의 재산 주치의

714.878.9245
JAMES RHO
Realtor® Myungsun Rho
Jamesmyungrho@gmail.com
BRE# 02059071

최고의 가격으로 팔고 집 최저가격으로 사드립니다 비즈니스, 빌딩, 인컴 프로퍼티 정확한 분석
매의 눈으로 시장동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p>Westridge</p> <p>단지 중 최고 위치 골프, 시티뷰 방 4 화 3 1/2, 3,629SF 가격을 떠나 다시 만나기 힘든 드림 홈!</p> <p>\$1,320,000</p>	<p>Fullerton</p> <p>방 3 화 2 1/2 1991년 시원한 천장 중심지역, 시티뷰 가격 인하 최고 가격</p> <p>\$659,000</p>	<p>코스타메사 새집분양</p> <p>뉴포트 비치 S. Coast Plaza 가까운 럭셔리 단지 방3 화2 1/2 ~ 방4 화2 1/2 No Mellorooos</p> <p>\$880,000~\$940,000</p>	<p>Hotel</p> <p>115 Rooms 95% 투숙률 LA 인근지역 수익성 최고 매물</p> <p>\$11.5Mill</p>	<p>Hotel Crowne Plaza</p> <p>Cap 10.8% LA 인근 바닷가 최고의 수익률</p> <p>매매가 \$40Mill</p>
<p>Anaheim</p> <p>방 3 화 2 1/2 2005년 새집 전체 마루바닥 큰 창문을 환한 집 업그레이드 잘 된 넓은집</p> <p>\$479,000</p>	<p>Garden Grove</p> <p>방 3 화 2 1/2 게이트 단지 업그레이드된 1989년 한인타운 중심지 한인 선호 예쁜 집</p> <p>\$628,000</p>	<p>코스타메사 햄버거</p> <p>넷 \$7,000 Rent \$4,150 좋은 장소 파격적 가격 인하 내일은 없는 가격</p> <p>매매가 \$129,000</p>	<p>사이프레스 Liquor</p> <p>월 넷 \$10,000+Lotto 한주인 14년 운영 안전한 지역 콘도단지 입구 가격 인하</p> <p>매매가 \$254,900</p>	<p>Yogurt Land</p> <p>월수익 \$8,600이상 100% 종업원 운영 큰 사坪물에 위치 정확한 매상 순쉬운 운영 최적의 투자 조건</p> <p>매매가 \$399,000</p>